

Genesis 22 is one of the most remarkable chapters in the Old Testament. Abraham had been living in Beersheba, *in the land of the Philistines* (21:32-34). We're simply told that it was *some time later* that God tested Abraham (22:1). It may well have been quite a few years later. The account of Isaac's birth was in Genesis 21. Then we read in Genesis 22 that Isaac is old enough to carry the wood for the burnt offering (22:6). Isaac is now a young man.

What makes Genesis 22 remarkable is that *God tested Abraham* (22:1). And there are times when He will test you and me. Testing is part of His providential care for us. That's what we read about in 1 Peter chapter one. The trials of life that we must endure are part of God's refining fire. But, like Abraham, we can't always understand what's happening. God was testing Abraham's faith. We know that, but he doesn't. He can only go on in faith. It's the same for you and me.

창세기 22 장은 구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챕터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21:32-34). 그리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22:1). 몇 년 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창세기 21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 장에서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들 수 있을 만큼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22:6). 이삭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 장이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하셨기* 때문입니다 (22:1).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 장에 이것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인생의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항상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It's the test that astonishes us. Actually, it shocks us. 22:2, *Then God said, "Take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and go to the region of Moriah. Sacrifice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one of the mountains I will tell you about."* Put yourself in Abraham's shoes for a moment. How would you feel if God were to ask this of you? This is a test of the highest degree. And, to help us see its significance, consider how God has been working in Abraham's life.

God called Abraham to leave *Ur of the Chaldeans to go to Canaan* (11:31). In 12:2, 3, God promised to make Abraham *into a great nation and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But, on several occasions, Abraham threatened the fulfilment of God's promise. Two kings wanted to have Abraham's wife, Sarah, for themselves. In Egypt it was Pharaoh. Later, it was *Abimelech king of Gerar* (12:11-13; 20:1-5). Both times, Abraham claimed that Sarah was his sister. And on both occasions, God intervened and rescued Sarah.

이 시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2: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생각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것은 최고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11:31). 12:2,3 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뻔 했습니다. 두 왕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원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였고 그 뒤에는 *그칼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12:11-13; 20:1-5). 두 번 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말했고, 두 번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In Genesis 15 God made a covenant with Abraham. Abraham had complained to the LORD that he was childless (15:2, 3). The LORD then affirmed His promise to Abraham. He would indeed have a son and he'd have countless descendants (15:4, 5). Genesis 15:6 is a verse speaks into the life of Abraham and into our lives too. *Abram believed the LORD, and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Again, Abraham took things into his own hands. Both he and Sarah were getting old. They had no children. With Sarah's prompting, he had a son with Sarah's maidservant, Hagar (Genesis 16). But this

son, Ishmael, was not the son of promise. Then, in chapter 17, God reaffirms His promise to Abraham. He and Sarah would finally have a son. They were to name him Isaac (17:19), which means, ‘he laughs’.

창세기 15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고 여호와께 불평을 했었습니다 (15:2,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약속을 확인 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 입니다 (15:4,5). 창세기 15:6 은 아브라함과 우리의 삶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아직 없었습니다. 사라가 설득하여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6 장). 하지만 이 아들, 이스마엘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7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 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웃다’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으라 하십니다 (17:19).

Sarah then urged Abraham to get rid of Hagar and her son from within the family. She wanted to be sure that Ishmael could **never share in the inheritance with... Isaac** (21:10). And so we come to Genesis 22.

Isaac is, then, Abraham’s long-awaited son, the son whom God had promised to him and Sarah. ‘Laughter’ filled Abraham’s house. Abraham was 100 years old, Sarah was 90.

In the fullness of time God’s promised Son was born. When the angel brought the good news to Mary, she asked (Luke 1:34),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The angel’s answer was much the same one that Sarah had receive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Luke 1:37, Genesis 18:14).

사라는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21:10). 그리고 22 장이 시작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그와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웃음으로 가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 세였고 사라는 90 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자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눅 1:34). 이때 천사의 대답은 사라가 받은 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눅 1:37, 창 18:14).

We can see why the Lord Jesus could say John 8:56), **“... Abraham rejoiced at the thought of seeing my day; he saw it and was glad.”** Abraham rejoiced at the birth of his son, Isaac (Laughter). And he looked forward to the day when God’s promise would be fulfilled in his Seed, Jesus.

But now, God says (22:2), **“Take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and go to the region of Moriah. Sacrifice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one of the mountains I will tell you about.”** This was not Satan tempting Abraham, as he had tempted Job. God was testing him.

Suddenly, God’s many promises to Abraham are threatened again. But this time it’s not Abraham or Sarah who endangers their fulfilment. It’s God Himself. For, if Isaac were to die Abraham would have no descendants. There’d be no blessing to all of the nations. Surely, Abraham would have thought of this as he took Isaac up to the mountains. The life of his son, his child of promise, was about to be taken from him.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56 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 (웃음)이 태어날 때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22:2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사탄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많은 언약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삭이 죽는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남지 않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산 위로 데려가면서 이 생각을 했을 것 입니다. 그의 아들, 약속으로 받은 아들의 생명을 곧 빼앗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How could God ask Abraham to take his one and only son whom he loved up a hill and offer him as a sacrifice? What kind of God would require anyone to be sacrificed in such a terrible way?

God was opposed to killing, for we are made in His image (Genesis 9:6). **“You shall not murder”** will later be one of the Ten Commandments given to Israel (Exodus 20:13). Israel was to be separate from the pagan Canaanites among whom they lived. Abraham was now surrounded by people who sacrificed children to their god, Molech (Leviticus 18:21; Deuteronomy 12:29-31). Their method of sacrificing their children as a burnt offering was horrible. You and I would find it totally repulsive. And now, Abraham is being asked to sacrifice his son.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산으로 데리고 가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을 희생하길 원하나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임에 대해 반대하십니다 (창 9:6). 후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 중 하나가 됩니다 (출 20:13).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살던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분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자녀들을 신에게 바치는 사람들인 몰렉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8:21; 신명기 12:29-31).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번제로 희생하는 방식은 끔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역겹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It was an enormous sacrifice that God was asking of Abraham. One writer notes, *‘No more fiery crucible for faith can be imagined. The cost to Abraham was everything.’* Imagine what was going through Abraham’s mind as he and Isaac walked to the region of Moriah. And yet, Abraham never questions God about this. As recorded in Genesis, he simply obeys God. The depth of his obedience is seen in the fact that he, Abraham, was to sacrifice his own son. This was Isaac, the son whom he loved (22:2).

On the third day, they arrived at the place God had appointed for Abraham to sacrifice Isaac (22:4). Abraham had had three days during which time he could consider what God has asked him to do. Those three days gave him time to persevere, as his faith is sorely put to the test.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저자는 ‘더 이상의 혹독한 믿음을 위한 시험은 상상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대가는 모든 것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의 깊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야 했다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말입니다 (22:2).

3 일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야 합니다 (22:4). 아브라함은 이 3 일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한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이 3 일동안 아브라함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Abraham and Isaac left the servants who’d come with them, telling them (22:5b),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Is this wishful thinking by Abraham? No! He trusts in the God who will provide. According to Hebrews 11:17-19, Abraham expresses a type of resurrection faith. ***By faith Abraham, when God tested him, offered Isaac as a sacrifice. He who had received the promises was about to sacrifice his one and only son, even though God had said to him,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Abraham reasoned that God could raise the dead, and figuratively speaking, he did receive Isaac back from death.*** But very soon, Isaac noticed that something was missing. 22:7, ***Isaac spoke up and said to his father Abraham, “Father?”***

“Yes, my son?” Abraham replied.

“The fire and wood are here,” Isaac said, “but where is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동행했던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며 그들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히브리서 11:17-19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팔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지만 얼마 안돼 이삭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22: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How could Abraham answer this question? Should he have told Isaac that he is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In what is a key verse in this chapter, Abraham replies (22:8),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my son.”*** And we’re left wondering, ‘Did Abraham really believe what he’d said to Isaac?’ We can only note that Abraham believed God and is ready to obey Him.

Come forward 2,000 years to the Lord Jesus, tempted by Satan in the wilderness (Matthew chapter 4). After fasting for 40 days, He was facing death from starvation, Satan tempted Jesus to doubt God. ‘God might not deliver Him. Jesus ought to test God. There was no bread there for Him to eat, only stones. Turn the stones into bread, for God had turned from Him.’ But the Lord Jesus resisted Satan with God’s Word. Matthew 4:4, ***“It is written: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에게 그가 번제로 드러질 어린양이라고 말을 해야 했을까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이 한 말을 믿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0일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아사 직전에 계실 때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한다. 예수님을 위한 떡은 없고 돌 밖에 없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4,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And so Abraham was tested when he was asked to give up his son. The apostle James notes that Abraham’s obedience is the outworking of his faith. (2:21-23), ***Was not our ancestor Abraham considered righteous for what he did when he offered his son Isaac on the altar? You see that his faith and his actions were working together, and his faith was made complete by what he did.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that says,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and he was called God’s friend.*** Note that Abraham’s faith is demonstrated by his obedience. It is never the other way. Obedience to God does not lead to faith. Obedience cannot earn God’s grace. James makes it clear, in 2:23,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and he was called God’s friend.***

In 22:9, 10 the narrator takes his time to tell us how Abraham prepared for the sacrifice. ***When they reached the place God had told him about, Abraham built an altar there and arranged the wood on it. He bound his son Isaac and laid him on the altar, on top of the wood. Then he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the knife to slay his son.***

아브라함은 아들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21-23),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증명됨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2:23에서 확실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2:9, 10 에서 글쓴이는 아브라함이 번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자세히 설명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The tension is rising. Abraham had his knife in his hand, ready to slaughter his only son. Suddenly, an angel gives an urgent cry from heaven. **“Abraham! Abraham?!”** (22:11). When Abraham responds to this cry, the angel continues (22:12), **“Do not lay a hand on the boy,” he said. “Do not do anything to him.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because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your only son.”**

Abraham looked up and saw that God had provided a lamb, a **ram caught in a thicket** (22:13). **He went over and took the ram and sacrificed it as a burnt offering instead of his son.** (22:13b) In 22:14a we read, **So Abraham called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What a great word of faith. The name of the place is explained in 22:14b. **And to this day it is said,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손에 쥐었고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야”** (22:11).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사자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공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2:13).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 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22:13b). 22장 14절 첫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의 말 입니까.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은 22장 14절 뒷부분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The ram died. Isaac lived. And because Isaac lived, Israel would become a great nation. As one commentator notes, **“The ram “instead” of Isaac. The ram “instead” of Israel.** And we can add, **“The ram instead of you. The ram instead of me.** For, if Isaac (the son of promise) had died there would be no nation of Israel, no tribe of Judah, no King David and no promised Messiah, Jesus Christ.

This account of Abraham and Isaac would be remembered when Israel recalled the first Passover feast in Egypt. God judged Egypt. **The LORD struck down all the firstborn in Egypt** (Exodus 12:29). But He passed over the Israelite’s houses where the doorposts were covered with the blood of a spotless male lamb (Exodus 12:13, 5). A lamb died instead of the firstborn in Israel. They were saved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a lamb died instead of you and me. John the Baptizer, on seeing the Lord Jesus, said (John 1:29),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esus is our sacrificial Lamb.

숫양은 죽었습니다. 이삭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한 해설자가 말했듯이 **‘이삭 “대신” 숫양. 이스라엘 “대신” 숫양. 그리고 우리는 ‘우리 대신 숫양. 나 대신 숫양.’** 이라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삭 (약속의 아들)이 죽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없었을 것이고 유다 민족도 없었을 것이고, 다윗왕도 없었을 것이며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첫 유월절을 기억할 때 다시 기억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출 12:29). 하지만 흠 없고 일년 된 수컷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넘어 가셨습니다 (출 12:13, 5).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 해 죽었습니다. 어린양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대신 해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양이 되십니다.

Earlier, in this message, we asked: **How could God ask Abraham to take his one and only son whom he loved up a mountain and offer him as a sacrifice? What kind of God would require anyone to be sacrificed in such a terrible way?** The answer is: Our God,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at He had asked of Abraham, He asked of Himself. He stopped Abraham from slaughtering Isaac. But He led His One and Only Son, the Son whom He loved, to be sacrificed on a Roman cross. On a hill outside of Jerusalem, not far from where Abraham very nearly sacrificed Isaac, the Lord Jesus paid the price for our sin.

What kind of God is our God? Genesis 22:1 and 14a. **God tested Abraham... So Abraham called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The writer of Genesis is encouraging God’s people as they are about to enter the Promised Land, Canaan.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산으로 데리고 가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을 희생하길 원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자 아버지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은 로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시킬뻔 한 곳에서 멀지 않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언덕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창세기 22:1, 14a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창세기의 저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Just as God provided for Abraham, so too He would provide for His people, Israel. We read in 22:14b, *And to this day it is said,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The day in this verse speaks to Israel, ready to enter Canaan. God tested Abraham. God provided for Abraham.

The God who tests us is the same God who provides all that we need to endure. The Apostle Paul writes in 1 Corinthians 10:13,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But when you are tempted, he will also provide a way out so that you can stand up under it.*

God has provided the way for us to be restored into a right relationship with Him: through the sacrifice of Jesus, His Son.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esus, the Lamb of God was slain for you and for me. Because of sin we were once enemies of God. We read in Romans 5:6 *You see, at just the right time,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Christ died for the ungodly.*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공급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공급 하십니다. 22:14b 에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오늘날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공급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디기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13에서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였었습니다. 로마서 5: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Recall again how James refers to Abraham in his letter. James 2:23b, *"Abraham... was called God's friend.* Can you and I be called a friend of God? Yes, we can! It's the same way for us as it was for Abraham. We are to trust in the Lord. But in our day, we trust that the Lord Jesus died in our place. When He rose from the dead, He rose to guarantee our new faith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Him.

The Lord Jesus commenced His ministry among us with these words (Mark 1:15),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The way of salvation, the way to get right with God is to confess that we have sinned. We confess that we fall short of God's standard of absolute perfection. And, having confessed our sins, we place our faith in Christ.

야고보가 그의 편지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억 하십시오. 야고보서 2:23b,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는 죽음에서 부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그의 사역을 시작 하셨습니다 (막 1:15),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에 이르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완벽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한 뒤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입니다.

We read in Romans 5:9-11, *Since we have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how much more shall we be saved from God's wrath through him! For if, when we were God's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him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how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shall we be saved through his life! Not only is this so, but we also rejoice in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we have now received reconciliation.*

God, not Abraham, provided the way for us to know God, to get right with God and be called God's friend. Only God could pay the price. He did that by providing His One and Only Son, His beloved Son,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ohn 1:29).

For family devotions, Martin Luther once read this account of Abraham offering Isaac on the altar. His wife, Katie, said, "I do not believe it. God would not have treated His Son like that!"

"But, Katie," Luther replied, "He did."

로마서 5:9-11,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 하고,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우게 되는 길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값을 치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가정예배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케이티가 "믿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티,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는 걸?"

In Genesis 22:12 the angel said to Abraham, "...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your only son." This is the same language that the Apostle Paul uses in Romans 8:32. *He [God]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Dale Ralph Davis notes that *what God stopped Abraham from doing, He Himself did. He did not hold back His own Son, but gave Him over for us all. God tests servants, but God gave His Son.*

How is God testing you today? We all have our trials in life. It may be the sickness of a relative or friend. Maybe you are enduring the pain and suffering of a broken friendship, the end of a relationship. You worry about your finances, your children, world peace, or, just simply your future. These trials are not signs that God has left you alone. Yet they test your faith,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It's not good enough for someone to say, 'Everything will look better tomorrow.' That's just 'cold comfort'. Nor is it enough to say, 'Keep your chin up, there are others who are worse off than you.' Rather, our tests and trials are given to us to prove our faith. 1 Peter 1:7, *These have come so that your faith—of greater worth than gold, which perishes even though refined by fire—may be proved genuine and may result in praise, glory and honour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Amen

창세가 22:12에서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로마서 8:32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언어와 비슷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데일 랄프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던 것을 막으신 그것을 자신은 직접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시험 하시지만 그의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시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모두 시험을 경험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깨진 친구 사이나 끝난 관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자녀들, 세계 평화, 또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두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누가 '내일이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도움이 안되는 위로'일 뿐입니다. 또한 '기운 내, 너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